

'안전 최우선' 전주국제영화제 준비 '만전'

김인태 전주 부시장, 준비상황 현장점검 실시... 미비점 보완·운영·시설·교통 등 꼼꼼히 살피

전주시가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를 찾는 영화팬과 전주를 찾는 관광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영화제를 즐기며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시는 24일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의 주 행사공간인 오거리문화광장의 '전주레드큐브' 조형물 앞을 시작으로 개막식이 펼쳐지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까지 김인태 부시장과 관련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화제 준비상황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현장점검에서 △스타워즈 존 in 전주 △오거리문화광장 △전주라운지(나래추차장) △영화의 거리 △전주영화제작소 △개막식 장소인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등 영화제가 진행되는 주요 장소를 돌아보며, 운영·의전, 교통·시설·미관 등 각 분야별로 영화제 준비가 원활하게 준비되고 있는지



전주시는 24일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의 주 행사공간인 오거리문화광장의 '전주레드큐브' 조형물 앞을 시작으로 개막식이 펼쳐지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까지 김인태 부시장과 관련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화제 준비상황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꼼꼼히 살폈다. 특히 과거 전주국제영화제의 메인

공간이었던 '전주돛'을 대신할 오거리 문화광장 주변의 관람객 이동 경로와

교통통제 계획을 집중 점검했다.

시는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발견된 영화제 행사공간의 미비한 부분을 철저히 보완해 영화제 개막 전까지 준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김인태 전주 부시장은 "영화제 행사공간과 관광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현장점검을 실시했다"면서 "행사공간의 미비점을 보완해 영화제를 방문하는 전주시민분들과 관람객분들에게 따스한 봄날 좋은 추억을 선물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42개국 247편의 영화가 상영될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는 오는 27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5월 6일까지 열흘간 오거리문화광장, 영화의 거리 일원 등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양은경 기자

전주역사박물관, 스마트 박물관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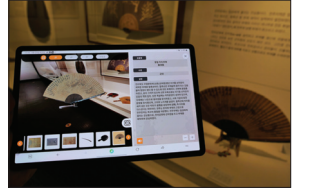
디오라마 매핑·디지털 기술 활용 전시환경 제공

전주의 역사와 문화를 전시하는 전주역사박물관이 스마트 박물관으로 변신했다.

전주시는 약 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추진한 '전주역사박물관 스마트 박물관 구축 지원사업'이 모두 완료됐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시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스마트 공립박물관·미술관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된 데 따른 것으로, 전주역사박물관은 이 사업으로 전주부성과 관련된 디오라마 매핑 영상과 함께 VR·AR 등의 기술을 활용해 박물관 소장 유물과 전시실을 가상공간에서도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관람객들은 박물관에 소장된 유물의 입체영상을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서 확대하거나 360° 돌려가며 관람할 수 있으며, AR 기술을 이용해 전시실 내부에서 실제 유물을 관람하며 유물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들을 수 있다.



또한 박물관 5층 전주역사실에서는 기존 전시 중인 전주부성 디오라마를 활용해 전주부성과 풍납문의 축성 철차, 1884년 전라감영에 방문한 미국 해군 포크(Foulk), 1502년 소실될 위기였던 조선왕조 실록을 지켜낸 전주사고의 이야기 등을 영상으로 만날 수 있다.

전주역사박물관 관계자는 "앞으로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관람객에게 다양한 전시환경을 제공하고, 더욱 풍성하게 즐길 수 있는 박물관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아록 기자

전통시장 활성화 상생협약

전주시-한국노총-상인연합회, 적극 협력 다짐

'강한 경제' 전주시 구현을 향한 민선 8기 발돋움은 전주시 유관 단체장들과의 '맞손'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 박덕규 한국노총 전주시지역본부 의장, 이만규 한국노총 팔복공단협의회 의장, 박종서 전주시 상인연합회 회장 등은 24일 전주시 장실에서 만남의 장을 이뤘다. '전주시 전통시장 활성화 상생협약'에 따른 목적과 실천 등에 대해 논의하고 체결했다.

이날 협약의 결과로는 한국노총 전주시지역본부의 전통시장(은누리) 상품권과 물품 구매, 전주시 상인연합회는 우수한 농산품과 고품질의 공산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 원산지표시 및 가격표시 이행과 친절도 개선 등에

따른 노력으로 시민 신뢰 활성화 구축에 한걸음 나아가기로 약속했다.

여기에 시는, 전주시 한국노총과 상인연합회 간 상생협력이 지속될 수 있는 여러 사안들에 대해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전주시는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한국노총 전주시지역본부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사무국은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주지역 노·사·민·정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박덕규 한국노총 전주시지역본부 의장은 "협약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 시너지 효과를 얻어 한국노총 전주시 지부와 전통시장 간 각각의 특성을 존



중하고 서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종서 전주시 상인연합회 회장은 "소비자들의 발길을 사로잡아 경쟁력 있고 활기찬 전통시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고 전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전주가 강한 경제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조건이다. 전주시의 '탄소와 수소, 드론' 등 3대 주력산업 고도화를 통해 든든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든든한 경제 정책을 준비하고 펼쳐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태 기자

책의 도시 전주, 시민 도서 발간 지원

'전주도서관 출판 제작지원' 공모사업 접수

책의 도시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출판문화의 도시인 전주시가 시민들의 도서 발간을 지원한다.

시는 24일부터 지역 출판사의 생산력 강화를 통한 책문화산업 발전을 이뤘기 위해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 '전주도서관 출판 제작지원' 공모사업의 신청을 받는다.

이번 공모에는 △개인 저자 △전주 지역 출판사 등이 1인당 2편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 저자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전주에 소재지를 둔 출판사와 사전 매칭 후 신청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전라북도를 소재로 한

문학과 인문서 분야의 국내 미발간 창작원고로, 오는 11월 30일까지 도서로 발간할 수 있어야 한다. 시는 올해 총 5편을 선정해 편당 600만 원씩 총 3000만 원의 출판 제작지원금 지급과 도서 홍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저자 혹은 출판사는 전주시 누리집과 전주시립도서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 후, 마감일까지 해당 원고를 접수처에 우편(택배)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230-1869)로 문의하면 된다.

/양은경 기자

우범기 전주시장, "현장 행정 최우선으로 해달라"

연일 현장 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시 35개 동장들에게 직접 현장을 찾아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점을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우범기 시장은 24일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든 문제는 현장에

나가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야 한다"면서 "시민의 불편 해결을 위해서 현장 행정을 최우선으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우 시장은 최근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이 가로수 들뜸 현상과 장애인 이동에 불편을 야기하는 보도블록 파손 등

다양한 불편 사항을 호소하는 것을 사례로 들며, 주민과 행정의 접점인 일선 동장들이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즉시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우 시장은 "시민들보다 먼저 불편 사항을 발견하고, 각각의 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현장 행정의 중요성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 시장은 '동아시아 문화도시 전주' 개막식과 '제24회 국제영화제' 등 대규모 국제행사가 연이어 개최되고, 5월 가정의 달 황금연휴도 다가오는 만큼 시민 안전을 위해 취약지 점검과 시설물 안전 점검에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시민 불편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 상반기 중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것을 지시했다.

/양은경 기자

전주시, 5월 종합·개인지방소득세 합동도움창구 운영

온라인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전주시민들을 위해 5월 한 달 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개설된다.

전주시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인 5월을 맞아 오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우빌딩 8층 회의실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하는 '종합·개인지방소득세 합동도움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전주시와 전주세무서, 북전주세무서가 합동으로 운영하는 창구에서는 모두 채움대상자 중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지원한다. 또한 이 창구에서는 지원 대상자 외 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는 자기 작성 창구를 운영하고, 복식부기 의무자 등은 세무서 방문을 안내하게 된다.

/조아록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